

“10월엔 화순 고인돌 가을꽃축제와 함께”

18일~내달 3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내 “낭만 속으로” 축제 유료 관람, 지역상품권으로 환급... 화순군민 무료 입장

화순군의 대표 축제인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오는 18일 개막을 앞둔 가운데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은 공연·판매·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일부 판매만 진행되는 경관 관람형 축제로 진행된다.



축제장 초입에 코스모스, 해바라기, 국화 등 9종의 다양한 가을꽃 단지가 2만 평 이상 넓게 펼쳐지며, 화순을 대표하는 가을꽃 조형물 68종 174점이 화순 고인돌 유적지 곳곳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화순 고인돌 유적지 관광 활성화 국제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5개 분야에 총 2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난 축제의 아쉬움으로 제기되었던 넓은 축제 공간도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7개 존으로 압축하였고, 휴게시설도 2개소 이상 늘려 편의를 증진했다.

오로,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된다.

상품권은 축제장은 물론 화순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민은 무료다. 올해 처음 도입한 축제 유료화가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축제는 모든 판매 부스에서 다화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적 축제로 진행된다.

환경과과의 주변인 일회용품 사용을 대폭 줄이고 축제장 내 모든 음식은 다화용기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화용기 사용 물품은 그릇, 접시, 사각볼, 숟가락, 젓가락, 컵 등이며 관광객들이 사용 후 축제장 내 마련된 공동 퇴식구 및 자를 반납대에 반납하면 된다.

고인돌 가을꽃축제는 야간 축제 운영이다. 축제 평균 방문 시간은 약 3시간으로 광주에서 접근성이 좋은 장점도 있으나, 오래 머물지 못하는 단

점도 존재하였다. 이에 축제장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10월 19일과 26일(토요일) 이틀 동안은 저녁 9시까지 야간 경관, 2024 DM 콘서트를 개최하여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가을의 낭만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제만의 대표 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한 때 전국 3대 관광지로 불렸던 화순 광업소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탄광 아이스크림, 국화의 향기를 입힌 △국화 로스팅 커피, 축제마다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좋은 △들순이 국화빵과 화순의 대표 과일인 복숭아를 형상화한 △복숭아 빵은 축제 기간에만 맛볼 수 있는 단품 음식이다.

조형체 화순군 관공체 육실장은 “우리 축제는 진정한 친환경 축제이며 쉽고 여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자연 친화 힐링 축제이다. 축제장에 오는 순간 어느 축제장에서도 볼 수 없는 드넓은 가을꽃과 편안한 휴식 공간에 마음이 치유되고 행복하다는 느낌이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친구·연인과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볼거리 많은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에 함께 하길 바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화순=유종현 기자

완도, 지역자활센터 경영 평가 ‘우수 기관’

보건복지부 주관 4년 연속 수상 영예

완도군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자활센터 경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영 평가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2024년 자활 참여자 증감률,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증가율, 수익금 및 매출액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완도군은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완도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위한 사업단 운영, 자활 기업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완도지역자활센터는 ▲어구 정비 ▲‘깔끔미’ 청소 ▲청해 영농 ▲커피&토스트 ▲빵&누룽지 ▲어망 정비 등 12개의 사업단과 구구팔팔 헬스, 희망 집수리 사업, 새하얀 청소 용역 등 4개의 자활 기업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자활센터 경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은 자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다”면서 “앞으로도 자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완도=이두식 기자

목포, 골목길문학축제 호평 속 마무리

청년·마을 주민·온 가족 함께 하는 참여형 콘텐트로 인기



목포 문학의 산실이자 한국 문학의 거봉을 다수 배출한 북교동 차범석길 일대에서 개최된 골목길 문학축제가 이색 문학축제라는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학, 유투피아 문학마을을 만나다’는 주제로 지난 5일과 6일 북교동 차범석길 일원에서 개최된 ‘시월애 문학여행 목포 골목길 문학축제’는 골목길, 작가 생가, 빈 집, 마을 공터, 빌라 주차장, 게스트하우스, 교회 주차장 등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문학의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번 축제에서는 개막식, 골목길 문학 전시, 공연, 체험 및 독립서점

페어, 4인 4색 문학제, 차범석 탄생 100주년 행사 등 다양한 문학 관련 프로그램에 청년, 학생,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남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학, 유투피아 문학마을을 만나다’는 주제로 지난 5일과 6일 북교동 차범석길 일원에서 개최된 ‘시월애 문학여행 목포 골목길 문학축제’는 골목길, 작가 생가, 빈 집, 마을 공터, 빌라 주차장, 게스트하우스, 교회 주차장 등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문학의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번 축제에서는 개막식, 골목길 문학 전시, 공연, 체험 및 독립서점

광양시티투어 10월 광역코스 참가자 선착순 모집

광양시가 그달의 가장 특색 있는 코스를 엄선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광양시티투어 광역코스 ‘광양여행 가는 날’ 10월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10월 ‘광양여행 가는 날’은 천고마비의 절정을 장식할 ‘제20회 광양전통술불구이축제’와 연계해 오는 11일과 13일 총 2회 운영한다.

순천 ‘뿌리깊은나무 발행인 한창기의 전통인식’ 학술대회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한창기가 남긴 소중한 기록유산 대한 가치 집중 조명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 한글날을 맞아 한글과 전통문화를 사랑했던 한창기의 전통 인식을 살펴보는 학술대회를 8일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인공인 한창기(1936~1997) 선생님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 위치한 낙안면과 가까운 별교읍 고읍리에서 태어났다.

한창기 선생님은 우리 토박이문화

와 당대 소시민들의 삶을 후대에 전하고자 1976년 문화잡지를 창간했다. 그 잡지가 조선 세종 때 한글로 발행한 최초의 악보 서사시인 ‘용비어천가’에서 따온 ‘뿌리깊은나무’이다. 이 잡지는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현으로 된 당시의 말을 순우리말로 풀이해 당시 매우 큰 호평을 받았다.

학술대회는 뿌리깊은나무재단 차정금 이사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한창기가 직접 수집했던 조선시대 한글고소설, 그가 발행한 ‘뿌리깊은나무’ 잡지, ‘민중자서전’, ‘판소리전집’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뿌리깊은나무 발행인 한창기의 전통인식’ 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061-749-88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조순의 기자

장성사랑상품권, 9월 판매액 47억 원 기록

추석 명절 15% 특별 할인·구매한도 상향 ‘주효’

광양시티투어 광역코스 이용료금은 1만5천 원이며 식비, 입장료, 여행자보험 등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남도한바퀴 홈페이지(누리집) 시티투어 코너 ‘광양여행 가는 날’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 전화(062-360-8502)로도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장성군, 추석 명절 선물 15% 특별 할인

품권 15% 특별 할인 ▲개인 구매한도 100만 원 상향해 상품권 이용 확



장성군이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실시한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 ▲개인 구매한도 100만 원 상향해 상품권 이용 확

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군에 집계한 바에 따르면 8월 대비 9월 카드형 상품권 구매액이 무려 5배 증가했다.

종이형 상품권 구매액까지 포함하면 9월 한달간 총 47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특별 할인이 적용된 장성사랑상품권이 명절 준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이끈 ‘효자’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상품권 판매 확대 및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심재석 기자

해남, 찾아가는 국가 구강검진 짝수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해남군은 지역 주민들의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 올해 9월부터 찾아가는 국가 구강검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치과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구강검진, 스케일링, 불소도포, 구강보건 교육 등을 제공하게 된다. 검진대상은 올해 짝수년도인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이다.

해남군의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은 2022년 기준 16.6%로 전년 18.9%에 비해 낮은 편이다.

“농업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나주농업페스타 개최

2024 영산강축제 연계...농경문화체험 등 즐길거리 풍성

나주시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영산강 정원 일원에서 ‘2024 나주농업페스타’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2024 나주영산강축제와 통합 추진되는 나주농업페스타는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 나주농업 전시 홍보,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선 보인다.

농경 유물전시와 미래농업(스마트팜, 드론) 전시를 통해 농업의 과거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치유 텃밭정원 조성 등 몸과 마음의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나주배·배즙, 한우 등 축산물 무료 시식행사와 나주배, 쌀, 잡

곡, 한우 등 다양한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이벤트(한우 30%)를 진행한다.

특히 당일 농특산물 우수 구매고객에 대한 무료 택배지원과 농특산물 구입액의 10%를 농특산물 구입쿠폰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배·풍 탈곡체험, 볏짚뚜기, 새끼꼬기 등 농경문화체험과 드론시연 및 체험, 씨앗 캐주얼링, 배깅뚜기 감치 담그기, 토하젓만들기 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업의 과거와 미래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기



획했다”면서 “앞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 과 소비자가 한데 어우러진 나주농업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신동희 기자

무안마을 장애인 인권영화제 성료

무안군은 최근 남양중앙공원에서 ‘제3회 무안마을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영화제는 자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안재성)가 주관하여 ‘여기에, 우리가 있다’를 주제로 장애인 인권 영화를 상영했고 부대 행사로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홍보 부스, 관객과의 대화 등을 운영하며 지역민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올해 영화제 상영작품은 배리어프리, 탐시실 등을 주제로 무안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자체 제작한 ‘내가 바라본 영상 속 세상’을 개막작으로

총 5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축하공연 등도 선보였다.

안재성 센터장은 “영화제를 통하여 장애인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보고자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장애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일상의 가치를 누리며 더불어 사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민 기자

광양읍, 민·관 합동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앞장

광양밀알회·우리동네복지공동체, 홀몸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광양읍 광양읍은 광양밀알회, 광양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 예방홍보팀, 광양읍 우리동네복지공동체,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양읍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주거환경개선 생활하면 홀몸 어르신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5일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해 가구는 기초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던 홀몸 어르신 가구로 올해 2월 맞춤형복지팀의 가정방문으로 발굴됐다.

광양읍 맞춤형복지팀은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협의에 나섰다. 그러던 중 최종적으로

광양밀알회의 지원이 결정되면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앞뒤 베란다 페인트 도색, 벽체 보강, 주거 청소 및 정리, 생활 가구 및 집기류 지원 등 약 300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광양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와 광양읍 우리동네복지공동체도 광양밀알회의 지원에 힘을 보탰다. 생활안전순찰대는 어르신 협업·당을 확인하고 소화기기를 점검했으며 우리동네복지공동체의 경우 홀몸 어르신 가구의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한편 황민석 대원의 후원으로 중고 생활가구(수납함)를 제공했다고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광양=조순의 기자